

일본 LGBT(문학) 옛보기

특집시론

그 불가능한 가능성

이지형

1. 어느 이성애자(異性愛者)의 ‘성 소수자’ 옛보기

현대사회 및 경제의 분화·고도화에 따라 소수자들의 양상이 점차 다중화되고 있다. 그 숫자도 점차 증가 추세다. 이에 성(젠더), 인종, 계층, 연령, 장애 등의 다양한 기준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들의 권리와 자존을 확보하려는 운동과 소통이 점차 가시화되는 추세의 요증이다. 이 중 성적(性的) 소수자는 조금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다른 마이너리티와는

이지형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일본 근현대문학과 문화를 강의한다.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와세다대학교와 쓰쿠바대학에서 일본근대문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워싱턴대학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최근의 관심사는 문학과 사회·예술의 교섭, 고백 문학 그리고 1930년대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전시기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의 대륙여행기와 식민지」(『일본학보』 제88호, 2011), 「근대일본문학과 서양음악의 조우: 파리의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과 드뷔시」(『일본연구』 제30호, 2011), 「문학가의 경제의식: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과 192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일본언어문화』 제11집, 2007),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문학과 여성정신질환: 히스테리를 중심으로」(『일본문학학보』 제34집, 2007),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살인을 저질렀지만(人を殺したが)』의 풍경: 살인의 추억 그리고 판동대지진」(『일본문화연구』 제10집, 2004) 등이 있다.

달리 그(그녀)들의 존재는 잠재적이다. 흔히 ‘커밍아웃(coming-out)’이라 불리는 성 정체성의 자기 고백 없이는 그(그녀)들의 존재는 여전히 은폐된 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은폐의 이유, 그것은 잠재된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은폐된 비밀을 현현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은폐할 것인가의 여부는 온전히 당사자의 주체적 선택에 맡겨진다. 비밀이 현현됨을 통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순간, 그(그녀)들은 비로소 ‘소수자’의 일원이 된다. 이 ‘잠재성’ 혹은 ‘잠재적 소수자성’이야말로 성적 소수자가 다른 소수자와 구별되는 특징인 동시에 그(그녀)들의 문제가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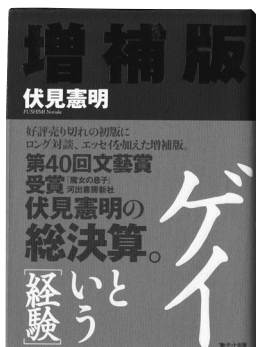
이 글은 한 남성 이성애자의 일본 LGBT ‘그냥 엿보기’다. 가까이 다가가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대상’과 ‘나’ 사이의 틈새를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글의 올바른 시작법일 것이다. 그렇기에 어찌 되었든 이 글은 한낱 ‘엿보기’ 작업에 불과하다. 작업의 길잡이로서 아래 네 권의 책에 크게 시사받았음을 밝힌다.

- 風間孝・河口和也, 『同性愛と異性愛』, 岩波書店, 2010.

일본의 대표적 동성애 논자가 쓴 동성애자 관점의 일본 사회론. 에이즈 문제, 공공시설 이용 거부 문제, 동성애자 살인 사건 등을 통해 이성애 중심 사회의 뿌리 깊은 ‘동성애 혐오’ 실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긍정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노력도 소개하고 있다. 동성애 따위는 ‘혐오스럽다’, ‘나와는 관계없다’고 치부하는 이들에게 더욱 일독을 권한다는 추천글이 눈길을 끈다.

- 伏見憲明, 『ゲイという経験』, ポット出版, 2004.

작가이자 비평가인 남성 동성애자 후시미 노리아키의 ‘게이론’ 집대성. 대담, 에세이, 평론, 신문, 만화, 사진, 연표 등 다채로운 형식의 ‘게이’에 관한 문화·사회적 정보들이 망라되어 있다.



- 飯野由里子, 『レズビアンである〈わたしたち〉のストーリー』, 生活書院, 2008.

일본 레즈비언 운동의 흐름과 맥락을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정리한 책. 레즈비언의 문제의식을 여성학, 퀴어 이론, 인종 소수자 문제 등과 접목시켜 마이너리티 간의 경계를 뛰어넘은 연대의 필요성을 성찰적으로 제기한다.

- 田中玲, 『トランスジェンダー・フェミニズム』, インパクト出版会, 2006.

성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주변적 존재인 트랜스젠더의 실상을 엿보기에 매우 적합한 책. 남과 여, 어느 성별에도 단순히 수렴되지 않는 트랜스젠더의 경계성이야말로 ‘성차별 없는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라는 트랜스젠더(FTMTX) 저자의 주장이 울림 있다.

LGBT란 무엇인가? 흔히 ‘성적 소수자’, ‘성적 마이너리티’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여성 동성애자(Lesbian), 남성 동성애자(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든 용어다.¹

1 성적 소수자는 LGBT에 ‘인터섹스(intersex)’를 덧붙여 LGBTI로 통칭되기도 한다. 인터섹스는 선천적으로 남녀 성기를 모두 지닌 경우로서 반음양자(半陰陽者) 또는 간성(間性)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외과적 수술을 통해 다른 한 쪽을 거세하고 더 명확한 쪽으로 일원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LGBT란 용어의 유래는 성적 소수자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자인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처음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통용되기 시작해 현재 일본에서도 ‘성적 소수자’, ‘성적 마이너리티’와 혼용되거나 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이 당사자의 ‘성적 지향’에 의거하는 데 비해 트랜스젠더는 ‘성 자인(自認)’²에서 발단하기에, LGBT란 호칭은 실은 매우 임의적 용어다. 그렇다고 게이와 레즈비언이 동성애자라는 점점 때문에 주류 사회에 대해 반드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아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과 유사한 비대칭 관계가 게이와 레즈비언 사이에 발견되기도 한다. 양성애자들은 그 성적 지향의 모호성으로 인해 동성애자로부터 따돌림 당하기 일쑤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한층 더 복잡하다. ‘남/여’에서 트랜스되어 ‘여/남’으로 바뀐다는 이유로 ‘성별 월경자(性別越境者)’로도 불리는 ‘그/그녀’들의 트랜스 이유가 반드시 ‘성 동일성 장애’는 아니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 그 어딘가 한쪽에 꼭 귀속되지도 않는다. 각각의 성 자인과 성적 지향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남/여의 성별이원론(性別二元論)에 균질하게 수렴되지 않는 트랜스젠더의 내실은 철저히 ‘경계적(境界的)’이다.

이처럼 LGBT로 통칭되는 성적 소수자의 내실은 결코 균질하지 않으며 심지어 비대칭적이다. 하지만 LGBT 상호 간에 엄존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들을 함께 문제시하는 것은, 이른바 ‘정상성’으로부터의 이탈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감수해야만 하는 ‘차별·혐오·소외·배제·기피·무시’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들은 ‘유사’한 존재로 규정된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규정된 존재의 유사성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LGBT

2 ‘성 자인(自認)’은 영어로 gender identity이다. “자신은 남성(여성)이다”, “레즈비언(게이)이다”라는 식의 젠더 자기인식을 뜻한다. 田中玲, 『トランスジェンダー・フェミニズム』, インパクト出版会, 2006, 11쪽.

가 상호 차이를 넘어 횡단·연대해야만 하는 근거이자 출발선이다. 동시에 이러한 ‘횡단’의 사상이야말로 ‘정상’을 자처하는 한 이성애자가 ‘경계’ 너머를 감히 엿보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근거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경계 너머의 지평을 LGBT 현실과 문학 사이의 횡단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한다.

2. 일본 LGBT, 그 속살과 주변

LGBT는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를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하는 성별이원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성별이원론에 의해 견인되는 것은 이성애원리다. 이성애 원리에 입각해 동성애자(혹은 양성애자)들은 비정상, 이상으로 낙인찍히고 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많은 LGBT가 커밍아웃을 실행치 못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는 이른바 ‘클로젯(closet)’³ 상태로부터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지하듯이 섹슈얼리티는 본능과 자연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일탈’임을 인정하는 대신에 동성애자를 ‘일탈’로 병리화하는 사회구조 그 자체를 문제시한다.⁴ 일본에서도 LGBT의 자기주장은 동성애자들로부터 촉발되었다.

일본에서 동성애 차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이다. 동성애자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 속에서 주목된 것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관점이다. ‘성적 지향’은 어떤 성

3 LGBT가 커밍아웃하기 전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는 상태를 벽장, 찬장, 비밀 상태, 숨겨진 상태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closet에서 따와 ‘클로젯(クロゼット)’이라 칭한다. 風間孝・河口和也, 『同性愛と異性愛』, 岩波書店, 2010, 177쪽.

4 上野千鶴子, 「ジェンダー研究への誘い」, 『ジェンダーがわかる』, 朝日新聞社, 2004, 8쪽.

별(젠더)에게 성적 욕망을 가지는가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관점이다. 욕망을 지니는 대상이 이성이면 이성애, 동성이면 동성애, 양성이면 양성애인 것이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용어에는 이성애도 동성애도 양성애도 동등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즉, 이성애도 동성애도 양성애도 각각 성적 지향의 하나일 뿐이다. 이성애는 ‘정상’이고 동성애·양성애는 ‘비정상’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⁵

이 성적 지향의 향배와 맞물려 성 정체성이 더욱 크게 좌우되는 존재가 트랜스젠더다. 일부의 오해와 달리 성 동일성 장애자와 트랜스젠더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당연히 성 동일성 장애자가 모두 트랜스젠더가 되지도 않는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의사로 자기 성별을 결정하는 성별 월경자(性別越境者)이기 때문이다.⁶ 즉 성별을 월경하는 사람이다. 성별 월경에는 외과적 성기 수술 외에도 수술 없이 이성의 복장 표현 등을 통해 월경을 체현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기에 그것은 완전한 여자에서 남자로 혹은 남자에서 여자로라는 식의 벡터에 그대로 부합되지 않은 않는다. 당연히 성애의 대상도 트랜스 이후의 성별이 여자라면 남자를 향하거나, 남자라면 여자를 향하는 ‘이성애’ 도식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트랜스젠더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자보다 복잡 다양하며, 그(그녀)들의 성 자인과 성적 지향이 다양한 양태로 조합을 이루어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⁷ 그렇기에 2003년 7월 제정된 ‘성 동일

5 風間孝・河口和也, 『同性愛と異性愛』, 158쪽. 성적 지향(指向)은 다양한 성의 취향 및 기호를 의미하는 ‘성적 기호(性的嗜好, sexual preference)’ 혹은 자발적 의지가 작용해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성적 지향(志向)’과는 구별된다.

6 田中玲, 『トランスジェンダー・フェミニズム』, 2쪽.

7 트랜스젠더의 성적 지향에 관해서는 일부 비판 의견도 있다. 성애를 품는 대상에 따라 자신의 신체 성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트랜스함으로써 오히려 이성애 규범을 강화하는 역학이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 지향에 기초한 성별 월경의 결과가 반드시 이성애의 벡터에 함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이 이를 증명한다.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은 각각의 성 자인과 성적 지향에 의거해, 일반적인 MTF, FTM 외에도 MTX, FTX, FTMX, MFTX 등으로 다양하다. 그 의미를 보면, MTF(FTM)은 각각 생물학적 남성(여성)으로 정의된 후 여성(남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트랜스젠더다. 이에 비해 MTX(FTX)는 생물

성 장애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은 분명 LGBT 인권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이지만, 이로 인해 모든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받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더욱 의미 있는 영향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애 성향에 대해 품었던 무의식적 자명성이 해체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2008년 간행된 제6판에서야 『고지엔(広辞苑)』에 '異性愛'가 처음으로 단어 수록되었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⁸ 이렇게 보면 트랜스젠더는 LGBT 중 상대적 소수임에도 LGBT의 경계성과 다양성을 가장 실존적으로 체현하는 문제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⁹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LGBT 내부에 존재하는 간극과 균열이다. 일찍부터 남성 동성애자들이 여성 동성애자들에게 배타적이었으며, 레즈비언은 레즈비언대로 동성애 남성 게이의 여성판으로 간주되는 것을 거부해 온 비우호적 관계가 그 대표적 사례다. 동성애자 간에도 남성 대 여성의 일반적 비대칭 관계가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다. 또한 동성

학적 남성(여성)으로 정의된 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성별(X)로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트랜스젠더이며, FTMTX(MTFTX)는 생물학적 여성(남성)으로 정의된 후 신체적으로는 남성(여성)으로 보이는 형태로 트랜스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성별에도 속하지 않는 성별(X)로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트랜스젠더다. 트랜스젠더의 내실이 이러하기에 트랜스젠더가 이성애 논리에 갇히기보다는 역으로 남녀 성별이원론의 정형성을 해체하는 가장 명확한 실존적 증좌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당연히 트랜스젠더 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모두가 가능하며 실제 적지 않은 숫자이다. 『トランスジェンダー・フェミニズム』을 저술한 다나카 레이(田中玲)를 예로 들면, 그녀(그)는 FTMTX이다.

- 8 이 정도로 '이성애'는 무의식 상태로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무의식적이었기에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성애주의'가 이제까지 온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 9 트랜스젠더의 경계성과 다양성을 증명하는 특징적인 한 예로 인도의 '히즈라(Hijra)'를 들 수 있다. 히즈라는 인도 사회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살아가는 성 소수자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와 유사하다. '히즈라'라는 말의 어원은 반음양자, 양성구유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섹스와 다른 점은 남자로 태어나 대부분 후천적으로 거세한 이들이 많으며 선천적으로 양성구유인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이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춤을 추고 축복해 주는 힌두교의 사머니즘적 존재로서 존경받았으나, 서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댄서, 매춘으로 연명하며 경멸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성(聖)'과 '속(俗)'의 양면성을 체현한다는 점에서 히즈라는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와 마찬가지로 LGBT의 경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문화적 존재다. 그들의 숫자는 델리(Delhi)에만 약 1만~1만 5000명이 거주하며 인도 전역에 약 100만 명 가까이를 헤아린다. 伏見憲明, 『性のミステリー: 越境する心とからだ』, 講談社, 1997, 19쪽.

애자들은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¹⁰ 나아가 이러한 틈새의 실체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을 통해서이다.

- ① 본서에서 말하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는 비교적 넓은 의미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주로 여성해방의 시점에서 레즈비언의 행동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레즈비언’을 가리킨다. (중략)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에 의해 말해진 ‘우리들’의 스토리에는 남성중심주의적 사회에 대한 분노와는 또 다른 분노가 포함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스토리가 될 수 없었던 분노, 말하자면 ‘전사(前史, 前ストーリー)’로서의 분노이다.¹¹

(밑줄은 논문 작성자에 의함, 이하 동일)

- ② 페미니즘은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따라 차별되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며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페미니즘의 흐름을 보면,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이성애자 중심의 분위기가 존재한다. 같은 ‘여자’라 해도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 폴리섹슈얼의 ‘여자’나 트랜스젠더로 ‘여자’가 된 이들. 또한 법률상 여성이지만 인터섹스인 이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중략) 페미니즘마저 성별이원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나는 현재 페미니즘의 양상에 트랜스젠더가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남녀이분법의 무의미함을 트랜스젠더는 명

10 양성애자(바이섹슈얼)에 대한 게이, 레즈비언의 비판을 LGBT 간에는 영어 단어 ‘bi’와 ‘bashing’을 합성해 ‘바이 배싱(バイバッシング)’이라고 부른다. 이 비판은 양성애자 중에 원래는 레즈비언(게이)인 이들이 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바이섹슈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심지어 양성애자에 대해 ‘변절’, ‘전향’ 등의 용어로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11 飯野由里子, 『レズビアンである(わたしたち)のストーリー』, 生活書院, 2008, 61~63쪽.

확히 드러난다.¹²

인용 ①, ②글 출전의 저자는 각각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로서 모두 페미니스트를 자처한다. 두 글 모두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천명하고 있다. ①에서는 ‘여성’이며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남성은 물론 여성으로부터도 차별받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의 분노가 토로되어 있다. 이중의 차별을 받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가 같은 여성인 이성애자 페미니스트로부터도 소외되는 실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의 관점 ②를 통해서 ‘페미니즘’ 내부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 구도를 알 수 있다. 즉, 이성애자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 간에 엄존하는 단계적 ‘중심성’과 ‘주변성’이다. 불행히도 ‘성별이원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페미니즘이 비LGBT와 LGBT를 연대케 하는 운동 매개로서가 아니라 양자 간의 위계와 위화감을 강화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서 LGBT 내부에 남성 대 여성, 이성애자 대 동성애자, 동성애자 대 양성애자, 비트랜스젠더 대 트랜스젠더 등의 다양한 비대칭적 간극이 엄존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소외·배제되는 것은 바로 다양한 성 정체성을 노정하는 LGBT 자신이다.¹³ 즉 분명해지는 것은 LGBT의 자기소외이며, 내부의 타자성이다.

흥미로운 것은 LGBT 내부에서도 가장 소외받는 주변적 위치의 ‘트랜스젠더’가 LGBT의 다양성은 물론 간극마저도 마땅히 아울러야 할 연대의 당위성을 가장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 田中玲, 『トランスジェンダー・フェミニズム』, 28~29쪽.

13 LGBT가 LGBT를 소외하는 또 하나의 예로서 게이 남성들 사이에 내면화된 ‘여성 혐오’ 또는 ‘여성 성 혐오’ 성향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게이인 것’이 ‘남성이라는 것’과 긴밀히 맺어짐을 통해 소외되고 마는 것은 바로 ‘여성스런 게이’다.

여러 가지 젠더의 존재 방식이 늘어나 세상은 ‘여자’나 ‘남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이성애자 네이티브 남성’에 ‘그 외’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폴리섹슈얼, 팡섹슈얼, 아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와 이성애자 네이티브 여성’이 대치하는 구도일 것이다. (중략)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의 울타리’를 자신의 스타일로서 선호하는 이들이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이성애자인 원래 남성’과 ‘그 외’의 인간들 사이에 압도적 권력관계(의 비대칭)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¹⁴

그(그녀)들이 연대해야만 하는 이유, 바로 압도적인 적이 현존하기 때문이다. ‘이성애자 네이티브 남성’ 앞에서 ‘이성애자 네이티브 여성’은 결코 대칭적 관계가 아니다. 그녀들 또한 그저 나머지 ‘그 외’에 함께 속할 뿐이다. 연대의 가능성은 이 ‘함께’에 수렴되며 또 ‘함께’로부터 발현된다. 일반(?) 여성,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이 ‘그 외’로서의 구심력을 찾아 ‘함께’ 할 때 비로소 적들의 강고한 장벽은 균열의 조짐을 드러낼 것이다. 트랜스젠더는 그 대항적 구심력의 단초다.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젠더는 가장 LGBT적 존재다.

3. 주목/소비되는 LGBT

과연 일본의 LGBT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 현재로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일본 국내 거주자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07년의 앙케트 조사 통계에 의하면, 남녀 동성애자, 즉 LG인구가 274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¹⁵ 세부 내용을 보면, 통계 결과에 기초해

14 田中玲, 『トランスジェンダー・フェミニズム』, 43~44쪽.

15 「LG市場規模 6兆6000億円～民間調べ, 芸術など関心～」, 『日経流通新聞』, 2007. 2. 12, 4쪽. 이는 컨설팅 회사 파젠타(パジェンタ)의 성적 마이너리티 관련 조사결과를 다룬 기사다.

추산한 일본 거주 레즈비언 인구는 166만 명, 게이 인구는 108만 명으로 총계 274만 명이며, 이는 일본 성인 20~59세 인구의 3.9%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또한 “동성애 가능성을 의식한다”고 대답한 동성애 잠재 인구를 포함하면 총 640만 명으로 20~59세 인구의 9.2%에까지 미친다. 즉, 성적 지향의 관점에서 274만 명 속에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가 일부 포함되었을 개연성을 인정하더라도, 일본의 LGBT 인구는 최소 274만 명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미국의 3.4%, 영국의 1.5%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다.¹⁶ 다만 조사 신뢰도는 갤럽, 정부기관이 각각 조사를 담당한 미국, 영국에 비해 사설 컨설팅 회사에 의한 일본의 경우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¹⁷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LGBT 인구가 상당한 규모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LGBT에 대한 최소한의 통계 조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¹⁸

한편 상당한 실제 규모에도 여전히 물밑에 머물고 있던 LGBT의 존재감이 최근 의외의 영역을 통해 새로이 조명되고 있다. 바로 LGBT의 경제적 측면이다. 다른 아닌 LGBT 시장의 큰 잠재력과 규모가 그 이유인데, 지속적 인구 감소 및 국내시장 축소로 위축 일변도의 일본 경제에 남겨진 거의 유일무이한 최후의 큰 시장이 LGBT라는 것이다. 일본 남녀 동성애자의 선택적 소비를 통한 국내시장 규모가 약 6조 6000억 엔이라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있다. 이는 일본 국내의 주류(酒類)시장에 필적

16 2012년 조사된 미국의 3.4%는 LGBT가 모두 망라된 수치이지만, 2010년 조사된 영국의 1.5%는 트랜스젠더와 양성애자가 제외된 결과다. 미국의 통계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의 통계는 갤럽이 2012년 6~9월에 걸쳐 미국 국내 거주 12만 1290명을 대상으로 성 인식에 대해 최대 규모의 양케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질문내용은 “Do you, personally, identify as lesbian, gay, bisexual, or transgender?”였다. <http://inamerica.blogs.cnn.com/2012/10/19/3-4-americans-identify-as-lgbt/> 또 다른 최근의 인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트랜스젠더 인구가 약 7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약 0.3%라는 통계 결과도 있다.

17 일본의 통계 조사 표본 모집단이 약 4만 명인데 비해, 미국은 12만 1290명, 영국은 45만 명이다.

18 동성애자가 한국 전체 인구의 3~5%, 심지어 10%를 차지한다는 일부 남성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대부분 심중에 기초한 주장으로서 그 신뢰도는 높지 않다. 이런 실정이니 LGBT 인구 전체를 가늠하는 것은 더욱 간단치 않다. <http://nalrari.tistory.com/435>

하는 큰 규모다.¹⁹ 실은 경제 효용 차원에서의 LGBT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비단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LGBT 시장의 가능성을 일찍 자각한 미국에서는 이미 대기업 간에 시장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LGBT 평균 세대 수입이 미국 전체 평균 수입의 1.5배이며 구매력이 연 69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²⁰

이처럼 LGBT 시장이 미국에서 주목받는 배경에는 평균 이상의 소득 및 소비 외에도 LGBT의 특징적 경향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그 첫째는 LGBT는 특정 상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상품 및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디자인 등의 취향도 개성적이라는 점, 셋째는 백인 고학력층이 많고, 넷째로 동서부 해안 도시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이 많다는 인식이다. 기실 LGBT가 고학력, 고소득, 백인에 그 취향이 개성적이며, 고로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선입견은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 LGBT가 이해되는 스테레오타입의 평균적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2년 실시된 미국의 통계 조사에서는 이러한 통념을 깨는 매우 의외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자신이 LGBT라고 답한 3.4%의 층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젊고 비(非)백인의 상대적 저학력 저소득층’이 최대 LGBT 커뮤니티임이 판명된 것이다. 이 분석은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 LGBT층이 주로 ‘도시 거주 백인 고학력 고소득자’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 구체적 수치를 보자. 인종별로는 아프리카계 4.6%, 히스패닉 4.0%, 아시아계 4.3%, 백인 3.2%이며, 학력별로 고졸 이하 3.5%, 학부 졸업 4.0%, 석사 2.8%, 박사 3.2%였다. 인종별로 백인은 평균치를 밑도는 가장 낮은

19 山川龍雄・細田孝宏・篠原匡, 「特集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眠れる市場を掘り起こせ」, 『日経ビジネス』, 2007.4, 90쪽.

20 山川龍雄・細田孝宏・篠原匡, 「特集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眠れる市場を掘り起こせ」, 92~93쪽. 기업들은 법적 가족이 될 수 없는 LGBT의 치명적 단점을 보완하는 상품을 개발해 특히 무선통신, 항공, 금융, 자동차, 여행 등의 업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율이며, 학력별로는 고졸·학부 졸업층이 석사·박사층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간 소득 2만 4000달러 이하가 5%로, 6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2.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인다. 참고로 성별로는 남성 3.3%, 여성 3.6%로 큰 차이가 없으며, 정치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가 43%로 공화당 지지자 13%와 큰 차이를 보여 역시 진보 성향이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예상 밖의 결과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은, 조사를 지휘한 UCLA 법대 윌리엄스연구소의 인구통계학자 게리 게이트 교수가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이것이 LGBT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LGBT 커뮤니티에도 다양성이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²¹ 이것은 일본 LGBT층의 다양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시사적인 자료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LGBT의 다양한 존재감은 일본 정치 분야에서도 변화의 흐름으로 감지된다. 2003년 일본 통일지방선거를 통해 일본 LGBT 최초의 의원이 된 도쿄 세타가야(世田谷) 구 구의원 가미카와 아야(上川あや)는 성 동일성 장애를 지닌 트랜스젠더다. 그녀는 2007년에 이어 2011년 선거에서도 승리해 현재 3선 의원이다. 2003년 오사카 의회 의원에 당선된 오쓰지 가나코(尾辻かな子)는 재임 기간 중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했다. 게다가 2011년 통일지방선거에서는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게이 의원 두 명이 당선되었다.²²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선포한 최초의 레즈비언과 게이 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2007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이시하라 신타로에 대항해 출마한 아사노 시로(浅野史郎)가 ‘게이의 거리’

21 <http://inamerica.blogs.cnn.com/2012/10/19/3-4-americans-identify-as-lgbt/>

22 가미카와 아야가 트랜스젠더임을 공표한 후 의원 당선된 데 비해, 오쓰지 가나코는 당선된 후 2005년에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하였다. 한편 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후 당선된 이는 도쿄도요시마(豊島) 구 구의원 이시카와 다이가(石川大我)와 나카노(中野) 구 구의원 이시사카 와타루(石坂わたる)가 그 주인공이다. 오쓰지는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한 최초의 정치인이며, 이시카와와 이시사카는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최초의 정치인이다. 이 중 이시카와 다이는 동성애자로서의 자전적 체험을 담은 게이 소설 『내 그대는 어디에 있을까?(ボクの彼氏はどこにいる?)』(講談社文庫, 2002)의 저자이기도 하다.

로 알려진 도쿄 신주쿠 2초메(丁目)에서 가두연설을 하였는데, 이 또한 LGBT 존재 인정의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나아가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결산위원회 질의나 소위원회를 통해 성적 마이너리티 문제가 언급되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 10월 국회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마쓰우라 다이고(松浦大悟)는 증가하는 ‘자살자 대책’에 관한 대정부 질의 중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성적 마이너리티를 언급하였다. 국세(國勢)조사에서 배우자 기입란에 동성 배우자를 기입하면 오류 취급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구체적 질의 내용이었다. 이것은 그 전까지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거론되었던 ‘성 동일성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 국회에서 LGBT에 대한 언급 및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미가 자못 크다. 특히 이성애자가 아닌 동성애, 양성애 언급으로서는 최초이기도 하다.²³ 또한 2012년 3월에는 민주당 위원을 중심으로 ‘성적 마이너리티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LGBT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²⁴ 하지만 경제적 차원의 주목과 얼마간의 정치 분야의 변화가 곧 LGBT에 대한 전반적 공감과 이해를 동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 소비시장으로서 LGBT가 상업주의적 관점으로 조명되는 것과 LGBT가 사회에서 동반자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심지어 LGBT는 풍속, 패션, 광고, 방송 등을 통해 상품 그 자체로 소비(소진)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소비되는 것은 대중이 LGBT에게 품는 환상이자 허상으로서의 이미지이며, 정작 현실의 LGBT는 그 와중에 더욱 소외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최초의 게이 의원 탄생이라는 획기적 사건은 방송, 언론의 무관심 속에 거의 ‘뉴스거리’도 되지 못했다.²⁵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무시와 냉대 그리고 차별에 직면하는 것이 일본 LGBT의 엄정한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LGBT가 그 내부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밖

23 <http://akaboshi07.blog44.fc2.com/blog-entry-231>

24 <http://ameblo.jp/respectwhiteribbon/entry-11195918506.html>

25 大橋希, 「日本初の「ゲイ議員」が誕生」, <http://www.newsweekjapan.jp/newsroom/2011/04/post-218.php>

으로부터 하나의 균질한 집단으로 인식,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즉 그(그녀)들의 ‘다양성(diversity)’에 대해 사회 일반은 철저히 무지하다. 그렇기에 LGBT가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를 표명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장벽에 틈입할 수 있는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4. LGBT 문학과 LGBT 현실 사이: 문학은 LGBT를 담보할 수 있는가

문학은 전통적으로 LGBT가 커밍아웃하는 그나마 가장 제도적인 통로였다. 이른바 ‘고백 소설’을 통해서였으며, 그 주체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 즉 게이였다. 이 때 커밍아웃은 “동성애자의 게이 아이덴티티 확립을 목표로 동성애상을 ‘수치’에서 ‘금지’로 전환해 차별을 철폐하고, 동성애자의 존재를 항상 공공연한 비밀로 몰아넣어 무시해 왔던 이성애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실행”²⁶하는 행동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천재적 작가로 한창 이름 떨치던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는 1895년 동성애 혐의로 정죄되어 2년간의 옥살이 끝에 비참하게 이국의 땅에서 죽어갔다. 그는 실제 커밍아웃하지 않았지만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1891)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커밍아웃 텍스트로서 읽혔다.²⁷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는 ‘커밍아웃의 선구자’가 되었다. 동시에 마땅히 은폐해야 할 은밀한 비밀이 탄로났을 때 동성애자가 감당해야 할 고초와 비참한 말로를 상징하는 본보기가 되어버렸다.

문학을 통한 커밍아웃은 거의 동성애자들의 몫이었다. 문제는 오스카 와일드의 경우에서 보듯 ‘동성애문학’을 가늠하고 정의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동성애자 작가가 쓴 소설인가. 동성애가 등장하는

26 大橋洋一, 「解説」, Oscar Wilde 外 著, 『ゲイ短編小説集』, 大橋洋一 監 訳, 平凡社, 1999, 356쪽.

27 플로랑스 타마뉴, 이상빈 옮김, 『동성애의 역사』, 이마고, 2007, 94쪽.

작품인가. 혹은 동성애와 일견 무관해 보이는 작품이라도 독자가 작품에서 어떤 암시를 찾아낸다면 이것을 ‘동성애문학’이라 부를 수 있는가. 애당초 ‘동성애자’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는가.²⁸ 이처럼 ‘동성애문학’이라는 카테고리는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장의 논의는 이 ‘불확실성’을 전제한다.

모호하지만 나루의 동성애문학 계보²⁹를 가지는 일본문학에서 이전 없이 동성애문학으로 평가받는 최초의 소설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의 『가면의 고백(仮面の告白)』(1949)일 것이다. 아토가미 시로(跡上史朗)는 그 이전까지 “일본문학 세계에서 남색 및 동성애에 관한 속설의 유포는 있어도 문학의 형태로 동성애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예는 없었다”며 『가면의 고백』을 통해 비로소 동성애문학의 근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³⁰ 이처럼 ‘동성애문학’이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소설이 미시마 자신의 커밍아웃인 까닭이다.

나는 뭔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인 줄만 알았는데 **그녀**인 것이다. 이 아름다운 기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다. (지금도 내게는 여자의 남장에 대한 뿌리 깊은, 설명하기 어려운 혐오증이 있다.) 그것은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해 내가 품었던 달콤한 환상에 대한 잔혹한 복수, 인생에서 내가 만난 최초의 ‘현실이 떠난 빈 복수’와도 같았다.³¹

(굵은 글자체는 작가에 의함)

28 黒岩裕市, 「ホモセクシュアル文学」, 『昭和文学研究』 第58集, 2009. 3, 78쪽. 黒岩은 ‘동성애’, ‘동성애문학’이라는 카테고리의 불확실성과 모호함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동성애문학을 일괄해 함께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29 일본 근현대문학 중 남성 동성애 관련으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堀辰雄 『燃ゆる類』(1932), 川端康成 『少年』(1951) 등이 있다. 그 외 동성애 표상을 근거로 분석되는 주요 작가의 작품으로는 夏目漱石 『それから』(1909), 『こころ』(1914)와 大江健三郎 『喝采』(1958)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동성애문학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http://kenko321.web.fc2.com/gay/list-gay.html>를 참조.

30 跡上史朗, 「最初の同性愛文学: 『仮面の告白』における近代の刻印」, 『文芸研究』 150卷, 2000. 9, 70쪽.

31 三島由起夫, 양윤옥 옮김, 『가면의 고백』, 문학동네, 2010, 21쪽. 원본 발표는 1949년이다.

주인공은 어릴 적 본 그림책 속의 잔 다르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임을 알게 되자 큰 충격에 빠진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눈뜨는 계기가 되는 이 장면에서 되레 흥미로운 것은 여자의 남장에 대한 주인공의 혐오를 언급한 부분이다. 그런 자신은 정작 어릴 적 클레오파트라 등의 여장 놀이를 즐겨한 장본인이다. 여기에서 “남성의 여장은 아름답고, 여성의 남장은 혐오스럽다”라는 식의 동성애 내부의 소외 구도를 엿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동성애 성향은 미시마의 우익 사상 몰입 그리고 천황제 편향과 긴밀히 연관된다. 나아가 천황제 혹은 과시즘의 여성 배제는 남성 동성애의 여성·레즈비언 폄훼와 패러럴 관계에 있다.³²

여성 동성애문학의 대표 격을 굳이 하나 꼽자면 마쓰우라 리에코(松浦理英子)가 유력 후보일 것이다.³³ 레즈비언의 연애를 다룬 작품집 『내추럴 우먼(ナチュラル・ウーマン)』(1987),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페니스로 변한 여성의 편력을 그린 장편 『엄지발가락 P의 수업시대(親指Pの修行時代)』(1993) 등이 그녀를 거론하는 근거다. 특히 『엄지발가락 P의 수업시대』는 ‘페니스를 남근주의(男根主義)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페미니즘의 문제의식과 접목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작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천명하지 않는 점과,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취향이 투영된 후속 작품들로 보았을 때 엄밀한 의미의 레즈비언문학이라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³⁴ LGBT의 경계성과 월경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간주하는 편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다른 작가로는 나카야마

32 미시마 유키오와 동성애, 과시즘을 아울러 논한 연구로는 ジェームス・キース・ヴィンセント, 「大江健三郎と三島由起夫の作品におけるホモファシズムとその不満」, 『批評空間』 2期(第16号), 太田出版, 1998이 있다.

33 마쓰우라 리에코는 자신이 레즈비언인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적 지향은 언제든 가변적일 수 있다는 그녀의 인터뷰를 토대로 엄밀한 여성 동성애자는 아닐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http://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059917025

34 ‘중(種)동일성 장애’와 ‘도그 섹슈얼(dog sexual)’을 자인하며 개가 되길 원했던 여성이 어린 개가 되어버린다는 파격적 내용의 『개의 몸(犬身)』(2007), 소설가를 업으로 하는 보통의 중년 남성이 친구인 레즈비언의 여성 관계를 질투한다는 고백 소설 형식의 『진기한 보물(奇貨)』(2012) 등 다양한 성적 관계성을 다룬 후속작들이 있다.

가호(中山可穂)³⁵가 있다.

혹은 여성 동성애문학의 기원으로서 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체념(あきらめ)』(1911)이 거론되기도 한다.³⁶ 하지만 그 근거는 미약하다. 여학생 선후배 간의 강한 정서적 유대가 남성 배제의 세계 속에서 그려지지만 거기까지다. 여성 간에 연출되는 관능적 분위기의 묘사가 일부 있지만 동성애문학이라 부르기에 미흡하다. 작품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페미니즘 색채가 더 짙다. 물론 동성애문학의 단초는 인정되며 페미니즘과 동성애주의가 굳이 별개일 이유는 없다.

그러면 트랜스젠더는 어떠한가? 트랜스젠더의 경우, 독자적 문학이라 부를 만한 장르적 실체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문학 속 캐릭터로서 선명한 인상을 남긴 작품들이 있다. 요시모토 바나나(よしもと ばなな)의 『키친(キッチン)』(1987)과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해변의 카프카(海辺のカフカ)』(2002)가 그 대표적 예다. 『키친』에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한 에리코상(えり子さん)이 있다면, 『해변의 카프카』에는 여자로 태어나 남자로 살아가는 오시마상(小島さん)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트랜스젠더 두 사람의 기묘한 성 정체성이다. 에리코상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 이후 더 이상 어떤 여자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된다. 오시마상은 성 동일성 장애를 겪는 여성으로 겉모습은 남성이지만 정작 성적으로는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다. 에리코상이 트랜스젠더가 된 것은 성 자인이나 성적 지향과는 무관한 선택이다. 이에 비해 오시마상의 섹스 아이덴티티는 여성의 정신과 남성의 신체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다. 말하자면 FTMTX 트랜스젠더인 것이다. 이처럼 일본문학 속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의 경계성을 여실히 투영하는 캐릭터로 조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5 레즈비언의 연애를 다룬 작품이 다수이며 그녀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천명했다.

36 菅聡子, 「女性同士の絆: 近代日本の女性同性愛」, 『国文』 第106集, お茶の水女子大学国語国文学会, 2006. 12, 28~33쪽.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전면에 부각시킨 작품으로는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의 『작사랑(片想い)』(2001)이 있다.³⁷ 대학 시절 미식축구부 여자 매니저였던 트랜스젠더 미쓰키의 살인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친구들의 눈물겨운 활약상을 그린 이 추리소설을 빼고 일본 문학에서의 ‘트랜스젠더’ 문제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은 왜 반드시 여자 혹은 남자여야 하는가?’라는 이 소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그만큼 묵직하다. 성 소수자에 대한 낯선 차별과 맞서기 위해 남녀 트랜스젠더 간의 ‘성별(性別) 교환’이라는 궁극의 위장 전략을 고안할 수밖에 없는 그(그녀)들의 처절한 현실이 ‘우리’ 안의 강고한 성별 이분 인식을 뒤흔든다.

한편 동성애를 모티브로 차용한 마이너 장르로 이른바 BL(ボーイズラブ)이 있다.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BL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었다. BL은 일본식 영어 ‘boys love’의 약자로, 여성 독자들을 위해 남성 동성연애를 소재로 구성된 소설·만화를 총칭하는 용어다. ‘야오이’, ‘JUNE’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작가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더 명확히 정의하자면, BL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남성 동성애가 모티브로 사용된 소설 및 만화”³⁸라고 할 수 있다. 독자인 여성의 욕망이 텍스트 속 남성 동성애 커플을 대상으로 한껏 투사된다. 텍스트의 주요 공간은 남자학교, 기업, 스포츠경기, 전쟁터 등 여성을 배제한 남성 동성 사회적 세계다. 그 속에서 남성 동성애 커플은 ‘남성 대 여성’이라는 이성애 커플의 전형적 모델을 차용해 묘사된다. BL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한편으로 “여성해방의 성과로서 마침내 도달한 ‘욕망의 자유’”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7 현재 이 작품은 국내에 『아내를 사랑한 여자』(창해, 2006)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어 있다. 『작사랑』이라는 원제목 그대로 출판되었던 2003년도 초판이 제목만 바뀌어 2006년에 다시 출판되었다. 제목 변경의 이유는 ‘작사랑’이라는 원제목이 ‘트랜스젠더’가 등장하는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8 内海紀子, 「メタフィクショナルな欲望: BLという文化をめぐる」, 菅聡子 編, 『文化現象を読む: ジェンダー研究の現在』, F-GENS, 2008, 115쪽.

“왜 여성은 섹슈얼 판타지를 향락하기 위해 남성 동성애를 선택하여 작품세계에서 여성 자신의 성을 스스로 배제하는가”³⁹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즉, BL에 대한 열광 이면에는 여성 자신의 ‘여성혐오’와 ‘자기부정’이 감추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다. 욕망 투사를 통한 자기실현인가, 아니면 자기혐오를 내포한 부정성 강화인가. BL에 대한 평가는 양가적이다.

그런데 BL의 이율배반적 양가성이야말로 다른 아닌 BL의 가치다. BL의 양가성은 실은 BL이 표상하는 마이너성과 통속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그렇기에 BL은 순문학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성애문학보다 더 LGBT 아이덴티티의 본질과 실제적으로 부합한다. 순문학적 동성애문학에 엮보이는 고답적 엘리트주의는 대중과의 거리감을 더 늘릴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의 하나가 BL이다. 또한 LGBT의 현실과 일상을 가벼운 터치로 진솔하게 다룬 자전적 소설 등도 LGBT와 비LGBT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공통 영역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 최초의 커밍아웃 게이 의원 이시카와 다이가의 커밍아웃 소설 『내 그대는 어디에 있을까?(ボクの彼氏はどこにいる?)』(2002)가 그 모범 사례다.

이와 같이 문학을 통해 LGBT는 자신의 정체성을 체현함과 동시에 체현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자(혹은 동일자)에 의해 소비되기도 한다. 문학을 매개로 맞닿는, 한편으로 맞부딪히는 것은 LGBT가 던지는 욕망과 LGBT에 던져지는 욕망이다. 그것은 안과 밖, 내부와 외부라는 경계를 해체한 채 한 데 뒤엎히는 무수한 운동으로서 교차되고 또 순환된다.

39 内海紀子, 「メタフィクショナルな欲望: BLという文化をめぐって」, 116쪽.

5. 그 불가능한 가능성: 일본 LGBT 전망

일본 최초의 게이 의원 이시사카 와타루는 2007년 첫 선거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 4년 뒤 2011년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LGBT의 처지와 권익만을 대변하고자 했던 이전의 입장에서 탈피해 LGBT를 포함한 장애인, 노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마이너리티의 주장을 아우르는 “소수자 간의 연대”를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이다.⁴⁰ LGBT 문제가 성적 소수자들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결혼제도, 가족제도, 취업 등과 같은 사회 기초적 시스템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며 현대의 다양한 사회적 약자 문제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는 메시지가 유권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것은 향후 LGBT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수한 것으로 치부되던 LGBT 문제를 보편적 지평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바로 ‘횡단과 연대’였다.

이어서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의 다음의 페미니즘 언급은 LGBT에게도 유효해 보인다. “중심 자체가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의 바깥에 머물며 중심을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에 연루시키면서 그 중심을 주변으로 만들 정치가 어떤 모습일지 감지하는 것.”⁴¹ ‘중심의 주변화’는 곧 ‘주변의 중심화’이다. 중심을 해체하고 중심/주변의 관계 그 자체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첫걸음은 자신을 ‘중심에 연루’시키는 것이다. 주변에 마냥 머무는 것도 아닌, 중심으로 귀순하는 것도 아닌 길, 그것은 주변에 여전히 발 디딘 채 중심에 투입하는 운동의 반복이자 순환이다. LGBT와 비LGBT의 관계야말로 ‘주변과 중심’의 관계이며 ‘동일자와 타자’의

40 2007년은 “성적 마이너리티를 위해 일하는 당사자”를 강조하며 선거에 임했다면, 2011년 선거에서는 “모든 사회적 마이너리티의 다양성 존중”, “모든 국민의 ‘불안과 고독을 함께 하겠다’”, “소수자와 다수자의 협동”과 같은 슬로건을 통해 다양한 소수자 간의 연대, 소수자와 다수자의 협력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사회에 발신한 것이 주효했다.

41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옮김, 『다른 세상에서』, 도서출판 여이연, 2003, 223쪽.

관계이다. ‘횡단과 연대’ 그리고 ‘중심과 주변의 치환’은 가능할 것인가? ‘치환’이 단순한 자리바꿈이 아닐 때, 그것은 곧 ‘횡단’이자 ‘연대’일 수 있을 것이다. LGBT의 다양성과 모호성은 되레 LGBT를 기점으로 다양한 영역 횡단적—성, 정치, 주체성, 언어, 근대국가 등—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생산적 계기로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LGBT를 향한 관음증적 호기심마저도 횡단적 대화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중심과 주변이 공생할 수 있는 ‘그 불가능한 가능성’은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신을 불신하는 것”⁴²이다.

42 인디고 연구소,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슬라보예 지젝 인터뷰』, 궁리, 2012, 265쪽.